

지나의 한국 사는 이야기
'나'는 1.5세 '아줌마'

언젠가는



얼마전, 아주 우연히 한 블로그 글을 읽었다. 제목은 '자녀를 잃은 상실을 삶으로 바꾸는 방법'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위로의 글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자 한 사람, 또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암으로 어린 딸을 떠나 보내고 환자와 가족을 돕는 단체를 세운 아버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이끄는 아버지, 백혈병으로 딸을 잃고 간호사가 되어 환자의 곁을 지키는 어머니. 그들의 삶에는 공통된 고통이 있었고, 동시에 나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빛나는 어떤 용기가 깃들어 있었다. 읽는 내내 감탄이 이어졌다. 어떻게 사람은 그렇게까지 자신의 아픔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데 뜻밖에도, 글 한쪽에 내 이야기가 있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열세 살 아들을 잃은 뒤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한 엄마가 있다. 그녀는 '자식을 잃은 부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연재하며, 자신처럼 자식을 잃은 이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돕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문장은 분명히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순간 나는 낯선 거울 앞에 선 사람처럼, 화면 속에서 나를 마주했다. "왜 내가...?" 머릿속에서 질문이 튀어나왔다. 그들의 삶은 하나 같이 훌륭했고, 이미 세상을 향해 분명한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 곁에 놓인 나의 이름은 어쩐지 부적절하게 느껴졌다. 나는 아직 한쪽은 슬픔 속에, 한쪽은 겨우 베틀의 땅 위에 걸쳐 서 있는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했다고, 어떻게 나를 그 사이에 들 수 있던 말인가.

맞다. 나도 자식을 잃은 부모였다. 그것만으로 나는 그들과 같은 출발선에 선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그들처럼 누군가를 도우며 새로운 길을 열지도 못했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목소리를 낸 적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숨 쉬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여기는 사람이었다. 나는 조금도 훌륭하지 않다. 그래서 더 낯설었다.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 사이에 놓인 나의 이

름이. 그건 영광이라기보다 숙제 같았다. 마치 누군가 내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으며 "당신도 언젠가는 이 길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 순간, 부끄럽게도 고개를 숙이고 싶었다. 아직 그럴 자격이 없다고, 나는 여전히 눈물 없이 아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의 슬픔은 아직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종종 스스로를 시험하듯 이런 질문을 던진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까? 내가 아직 이렇게 흔들리는데, 내가 전하는 말이 과연 힘이 될까?" 그러다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 나의 글과 영상을 보고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제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든 표현할 수 없어 답답했는데, 당신의 글 속에서 제 마음을 그대로 발견했습니다. 덕분에 제 이야기를 대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차올라 글씨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누군가는 내 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슬픔을 위로받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은 아주 작은 희망 같았지만, 오래도록 내 안에 머물렀다. 꼭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그 목소리는 내게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아이가 남기고 간 사랑을 품고 널리 널리 나누며 살아가고 싶다. 지금은 곁음이 더디고 서툴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랑이 내 두 손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그 글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은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식을 잃고도 그 누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게 부끄러움과 동시에 위안을 남겼다. 내가 아직 그 길에 온전히 서 있

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닿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은 조용히 나를 향해 물었다. 네 슬픔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냐고. 그 질문은 아프지만 동시에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비추는 등불 같았다.

나는 여전히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나 괜찮다. 아직은 단지 '살아내고 있는 사람' 일뿐이지만, 언젠가 내 상실이 누군가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때는 나도 그들 곁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상실은 내 안에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언젠가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붙잡는 손길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먼저 세상을 떠난 내 아들이 남긴 기적일 것이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으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 · 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HMO Group : SMG, CENTER 환영)

-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머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 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빠근한 통증 / 어깨가 안돌아가는 증상 (Frozen Shoulder) / 오십견 / 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생 때 조기 검진 중요)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 (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 / 요통 / 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 / Tennis Elbow / 손목 / 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신경통 (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 / 발목통증 / 변증상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및
각종 일반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
•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
• DRX 9000 (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 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윤동준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최고 권위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

	Lampson Ave	
Brookhurst St	Yoon Chiropractic	Euclid
	Garden Grove St	
	22 Fwy	